

신이식 후 이식신 절제에 대한 후향적 연구분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¹, 내과학교실², 외과학교실³

임소영¹ · 양철우² · 김용수² · 문인성³ · 이교영¹ · 심상인¹ · 최영진¹

Retrospective Analysis of Allograft Nephrectomy after Renal Transplantation

Soyoung Im¹, Chul Woo Yang², Yong Soo Kim², In Sung Moon³
Kyo-Young Lee¹, Sang-In Shim¹, Yeong-Jin Choi¹

Department of Hospital Pathology¹,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²
Department of Surgery³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에서 1990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9년간 이식신 절제술이 시행된 58례 (56명)의 신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임상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환자는 남자가 40명 (71.4%), 여자가 16명 (28.6%)이었으며 신이식시 평균 연령은 39.8세 (11-67)였고 30대가 19예 (69.6%)로 가장 많았다. 이식을 받기 전의 원질환으로는 사구체 침윤 4예 (6.8%), 당뇨병성 신증 2예 (3.4%), 다낭신 2예 (3.4%), 고혈압성 신증과 결핵 각 1예 (1.7%)였으며 원인불명의 말기신부전이 48예 (82.8%)였다. 이식신은 생체공여자 53예 (91.4%), 사체공여자 4예 (6.9%), 불명 1예 (1.7%)였으며, 생체이식중 혈연간이식이 17예 (29.3%)였고, 비혈연간 이식은 36예 (62%)였다. 신이식 후 이식신 적출까지의 기간은 평균 1,042일 (24시간-15년)이었다. 42예 (72.4%)에서 1회의 신이식을 받았으며, 2회의 이식을 받은 경우가 13예 (22.4%), 3회의 이식을 받은 경우는 3예 (5.2%)였다. 적출된 이식신의 진단은 급성거부반응이 동반된 4예 (6.9%)를 포함하여 만성 거부반응이 23예 (39.7%), 급성거부반응 16예 (27.6%), 초급성거부반응 4예 (6.9%), 항체매개성 거부반응 1예 (1.7%)로 거부반응에 의한 경우가 44예 (75.9%)였다. 기타 원인으로는 허혈성변화 7예 (12.1%), 출혈 2예 (3.4%), 신우신염 2예 (3.4%) 등 14예 (24.1%)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신이식 후 이식신 적출의 주요원인은 거부반응이며 이는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 이식신 절제, 신이식, 거부반응

Transplant nephrectomy, Renal transplantation, Rejection